

5·18 북한특수군 침투 '허위'...보고서 17건 모두 공개

조사위, 지만원 주장 '광수' 등 42개 근거 사실무근 결론 오는 15일까지 의견 수렴...민변 등 검토 후 입장 표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당시 북한특수군이 광주 일원에 침투,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지만원 등의 주장을 모두 '허위'라고 못박았다. 3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가 공개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의 광주일

원 침투 주장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만원씨 등이 제시한 '5·18 북한특수군 침투'는 '사실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5·18 북한특수군 침투'설은 처음 제기하다시피 한 지씨로부터 확산됐는데, 그는 42개를 근거로 제시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광수(광주 북

한 특수군)' 주장인데, 지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광수'라고 지칭하며 그 중 '광수 1호'에 대해 북한 농업상 '김창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5월12일 5·18 조사위가 연 대국민 보고회에 '광수 1호'를 자처하며 나온 시민군 차복환(당시 62세)씨가 사진의 주인공으로 판명되면서 지씨의 '광수' 주장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것으로 드러났다. 5·18 조사위는 '광수' 주장 의 나머지 41개 근거도 조목조목 따져 모두 사실

이 아니라고 판명했다. 지씨 외에도 '5·18 북한특수군 침투'설을 주장한 이들은 있으나 대부분 지씨로부터 확산·파생된 것들이라 5·18 조사위는 모두 '허위'라는 판단을 같이했다. 이번 보고서 공개로 5·18 조사위의 직권 조사 과제 모두 그 내용이 드러났다. 다만,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일원 침투 주장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보고서는 시민 의견 수렴 기간이 지난 후 공개돼 5·18 조사위는 오는 15일까지 별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갖기로 했다. 앞서 공개된 15건의 대해 쓴소리를 내달길 내용을 종합하려 한다"며 "미진한 과제에 대한 후속 대응 방법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은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18 당시 계엄군 등 성폭력 사건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타 사건에 비해 노력한 부분이 일부 보였지만, 조사위 위원 3인이 개별 입장을 낸 것은 당혹스럽다"며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안과 함께 미흡한 조사 활동에 대해 진단하는 공청회 등에 논의 중이다"고 언급했다. /주성학기자

'기아차 취업사기' 행정원장 벌금형

기아자동차 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취업 알선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광주지역 병원 행정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기아자동차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9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한 병원의 행정원장인 A씨는 "기아차 직원들의 건강 검진을 해서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는데, 취업할 자리가 났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지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기도 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기자



청년의 꿈 '힐링 공작소' 인기 3일 광주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청년 힐링 공작소 요리 원데이 클래스'에 참가한 청년들이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수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 /김애리기자

김종국·장정석 '범죄수익' 동결

후원사로부터 역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50) 전 감독과 장정석(50) 전 단장의 범죄수익 1억6천만원이 동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사인 커퍼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받은 1억1천만원과 5천만원에 대해 각각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합뉴스

'의정갈등 장기화' 市-광주 상급종합병원 '핫라인' 추진

전남대·조선대·광주기독병원 참여 협의체 구성키로 순환 당직제 등 결정...“긴급상황뎀 화상회의 개최”

광주시에와 광주 상급종합병원 등이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한다. 3일 광주시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조선대병원 1관 10층 회의실에서 윤성호 조선대병원 부원장, 윤경철 전남대병원 진료부원장, 이승욱 광주기독병원장,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이들 병원은

이에 따라 광주시에와 해당 병원들은 각 병원 과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긴급상황 발생 시 화상회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댄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 당직제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이들 병원은

자체적으로 당직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실을 운영 중이지만, 7주차에 접어들면서 일부 병원의 특정 진료과의 경우 피로 누적으로 응급실 환자 수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순환 당직제가 시행되면 특정 질환 응급환자를 당직 병원이 맡아주고, 다른 병원은 담당 의료진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 자리를 제언, 마련했다"며 "순환 당직제 시행 여부는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최영환 전 시의원 '매입형 유치원 비리' 개입

檢, 첫 재판서 '6천200만원 받고 정보 유출' 등 공소사실 밝혀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으나 인정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났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을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40)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로 "최 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외부위원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매입형 유치원 관계자 A씨와 부당 거래를 공

모, 관련 문건을 건네줬다"며 "선정 이후 진행 상황 등을 A씨에게 수시로 전달한 대가로 총 6천200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최초로 받았던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인의 계좌로 받은 뒤 신용·체크카드를 교부 받았다"며 "A씨의 유치원 외 다른 곳도 매입형으로 선정되도록 돕고 3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최 전 의원은 변호인의 사임에 따른 변경으로 다음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재개된다. /안재영기자

어등산리조트 200억대 투자비 반환 항소심 '조정 회부'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포기한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투자금과 이자의 최종 금액이 조정을 통해 결정되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3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 회부를 결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조정은 오는 18일 광주고법 조정실에서 열린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그간 지연손해금을 두고 대립을 보였는데, 투자비 반환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서다. 어등산리조트는 "지연손해금이 2018년부터 발생한다"며 "도시공사 측이

이자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비를 반환해야 할 처지인 도시공사는 "새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투자비를 반환하면 된다"며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어등산리조트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민간 사업자로 지정됐다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에와 세 차례 소송을 벌였다. 한편 새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 프라퍼티는 2023년까지 어등산 관광단지에 스타필드 등을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안재영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dji HDKorea

HDKorea

㈜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해보세요"

임동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금호월드점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